

 <b>교육부</b>				<h1>설명자료</h1> <p>2019. 10. 21.(월) 배포</p>	
보도일	<b>배포 즉시</b>				
담당과	중등직업교육정책과	담당자	과 장 사무관	송달용 (☎ 044-203-6398)	신민규 (☎ 044-203-6397)

## 특성화고 실험·실습 과정에서 방사선 노출은 없습니다.

- 언론사명 / 보도일시 : 연합뉴스(이재영 기자), 한국일보(송옥진 기자), 한겨레(이유진 기자), 한국경제(정의진 기자) 등 / '19. 10. 19.(토)
- 제목 : 찢리고 베이고, 방사선 노출까지... 위험천만 특성화고 실습

### <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>

- 지난 4년간 전류·방사선 노출 항목으로 집계해 제출한 15건의 안전 사고를 확인한 결과,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험·실습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된 바는 없었습니다.
- 교육부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실험·실습과정에서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.
  - 시·도교육청에서 공통 활용할 수 있는 특성화고 실험·실습실 안전 매뉴얼을 개발·보급하고 필요한 법·제도 개선을 병행하겠습니다.
  - 아울러 교육청과 협력하여 실습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을 확대하고, 주기적으로 실험·실습실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.
- 앞으로도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